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8월 26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20장 25-27절

설교제목 : “내가 깨끗하니”

이 땅의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과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사명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목적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이유를 알고 그대로 사는 삶이 사명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단지 생존하는 삶일뿐입니다. 그런데 사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오직 한가지입니다. 사명의 삶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울의 구체적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25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그러면,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5절을 문법적으로 보면, ‘내가 아노라’, ‘예고 오이다’라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헬라어는 동사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런데 주어를 기록하는 경우는 주어를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25절은 ‘내가’를 특별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법이 보여주는 의미는 바울이 오늘 이별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 자신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마지막 있습니다. 그 끝이 죽음입니다. 생존의 삶을 살든지 사명의 삶을 살든지 모두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이제 와라’하면 예외없이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울은 **딤후 4:6-8**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생존을 위한 삶이었는지, 사명을 위한 삶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실패자로 낙인찍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26절**에서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다로스**’는 ‘**죄가 없는, 무죄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27절**에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한마디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빗대어 자신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겔3:17-19) 파수꾼의 역할은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알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의 파수꾼으로 삼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복음을 전하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바울의

고백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음으로 당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신은 자유하다,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깨끗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깨끗한 삶은 단지 술 안먹고, 담배 안피우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에스겔이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게을리 해서, 영혼구원에 힘쓰지 않았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깨끗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본문에서 ‘오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엔 테 세메론 헤메라’입니다. ‘세메론’ 자체가 ‘오늘’이란 뜻이기에 뒤에 굳이 ‘날’이란 의미를 가진 ‘헤메라’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헤메라’를 붙였습니다. 따라서 원어적 번역은 ‘그 오늘이란 날 안에’란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바울이 오늘이란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일’, ‘앞으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위해 잘 살아야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하루의 시간만을 허락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시간만이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하루는 책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며 헛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 순간 이러한 사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내가 깨끗하니**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사명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봅시다.
- 2)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당신은 만일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부끄러움없이 깨끗하게 서실 수 있습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